

# 목포시, 中최대 국영여행그룹 등과 관광활성화 업무협약

### 내년 상반기부터 해외 관광객 유치 적극 협력

### 목포 관광 명소·김산업 기반시설 시찰 예정

목포시가 중국 최대 국영여행그룹인 중국청년여행사(중청여, CYTS)와 한-중 관광 교류 협력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북경환발해관광문화발전책임유한공사 등과 해외 관광객 유치에 나선다.

최근 중국 정부가 한국행 단체관광을 전면 허용하면서 시는 지난 21일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중국 최대 여행 관련 기업과 관광 활성화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목포 관광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방문단은 중청여를 비롯한 북경환발해관광문화발전책임유한공사, 한국여행협회(KATA) 소속 여행버스, 베이징시 푸둥구 정부

공무원 등 약 30명으로 구성됐다.

중국 3대 여행사 중 하나인 중청여는 1997년에 설립한 후 중국 여행업을 첫 번째로 성장한 상징적인 국유기업으로, 베이징·상하이 등 30개 이상의 핵심 도시에 지점이 있다. 특히 중청여 본사가 직접 한국 지자체에 방문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이다.

또한, 북경환발해관광문화발전책임유한공사는 2008년 설립돼, 한-중 등 동아시아 관광 교류 활성화를 위해 협력하는 기관으로 1500여개 여행사가 가입되어 있는 중국 여행사 및 문화관광 서비스 단체이다.

이번 협약은 ▲무안국제공항 등의 한-중 항공노선을 이용한 목포 관광상품 개발 협력 ▲목포시 관광기반 중국 현지 홍보 마케팅 추진 협력 ▲중국 국내 관광객 활성화에 따른 단체관광객 특전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2024년 상반기부터 관광 교류협력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 적극 협력하게 된다.

중국 방문단은 이번 협약식 이후 2박 3일 동안 목포의 주요 관광 자원을 둘러보고 목포 성장동력인 김산업 육성 기반을 확인 하는 등 목포를 종합적으로 시찰할 예정이다. 답사 후에는 양 기관이 중국 현지 대세에 맞는 목포 관광자원 홍보와 상품 개발에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해외 관광객 목포시 유치 활성화를 위해 중국 3대 여행사인 중국청년여행사(중청여)와 관광 협력의 지평을 넓히는 기회가 됐다”면서 “중청여 및 북경환발해관광문화



목포시가 중국 최대 국영여행사 중청여 등과 관광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왼쪽부터) 황안(雁) 중청여 부사장(해외 관광상품 개발 총괄), 박홍률 목포시장, 오연림(燕林) 북경환발해관광문화발전책임유한공사 회장

발전책임유한공사 등과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해외 관광객들이 찾는 큰 목포를 만들어 나가

목포=기동채본부

## 무안군, 우리 쌀 소비 촉진 교육 성료

### 총 16회 걸쳐 전문 교육 마무리...196명 대상 디저트 요리 개발·보급



무안군은 지난 7월 3일부터 11월 16일까지 총 16회에 걸쳐 우리 쌀 가공식품 활용 전문 교육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교육은 우리 쌀의 우수성과 쌀소비

촉진을 가정과 교육 현장에 홍보하고자 마련됐다. 여성농업인, 급식 관계자, 학부모와 함께하는 체험요리 교실, 우리 쌀로 만든 전통떡과 교육 등 5개 과정으로 이루어졌으며

영양교사, 조리사, 유치원·어린이집 원장, 학부모 등 196명을 대상으로 쌀가루로 만든 다양한 디저트 요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데 힘썼다.

특히, 9월 18일부터 9월 20일까지 3회에 걸쳐 진행된 초등학교 1~2학년과 학부모가 함께하는 체험요리 교실은 쌀로 만든 맛있는 간식 요리 실습 교육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쌀의 중요성을 알리고 즐거운 추억거리를 제공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쌀로 만든 간식(포켓쿠키, 무지개케이크)을 만들면서 교육과 재미를 다 잡았다.

또한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우리 쌀로 만든 전통떡과 교육(과일깨갱장, 구운 쌀 갱장, 콩알콩알과자)은 가공식품으로 개발 가능성이 있어 앞으로 여성농업인들의 활약을 기대해 볼 만하다.

김향금 농촌지원과장은 “매년 쌀소비량이 감소하고 있어 쌀 가공품을 통한 소비 확대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우리 쌀을 활용한 다양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무안=이기성기자

## 영암군, 청년 농업유통활동가 육성한다

### 영암 농특산물 홍보·유통 전문인력 양성, 발대식 열고 80시간 교육 시작

영암군이 21일 영암읍 달마복지센터에서 '2023년 청년 농업유통활동가 육성 교육 프로그램 발대식'을 개최했다.

청년 농업유통활동가 육성사업은 영암 농특산물을 홍보·유통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해 지역사회 활동 주체로의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것.

영암군은 이날 발대식에 앞서 공개모집으로 총 14명의 사업 참여 청년을 선정했다.

이 청년들은 앞으로 △상품 선정·홍보 △온

라인스토어 개설 및 운영관리 △로컬 브랜딩 개발 등을 주제로 8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게 된다.

이날 교육 프로그램 발대식에서는 교육 프로그램 설명, 활동 계획 안내, 윤현석(취적네트워크 대표)의 특강이 이어졌다.

영암군 관계자는 “지역 청년들이 이번 육성사업으로 영암 농업 유통사업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영암=조대호기자

## 신안 갯벌 보호를 위한 친환경경제 보급 박차

### 비금·도초·증도·하의 이어 읍해 지도읍 사옥도 추가 보급

신안군은 갯벌과 하천 등 자연환경 보호를 위한 친환경경제인 유음미생물 보급 사업을 지도읍 사옥도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섬으로 구성된 신안군은 하수처리시설 보급률이 39%로 전국 94%, 전남 80%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군은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갯벌과 해양 등 환경보호를 위해 2019년부터 비금, 도초, 증도, 하의 등 4개 면 22개 마을을 대상으로 친환경경제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읍면에 설치된 배양장에서 유음미생물을 직접 배양하고, 주민의 이용이 많은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친환경경제 주민 보급기를 설

치하여 주민이 필요한 만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특히 도초 한밭마을에는 유음미생물과 정화 식물을 이용한 자연정화 생태습지를 조성하여 수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군은 비금·도초·증도·하의에 이어 지난 10월 사옥도 당촌2구 경로당과 탄동경로당에 주민 보급기를 설치하여, 친환경경제 효용성과 생활 속 사용 방법 등 주민 교육을 시행하였다. 또한 내년에 2개 읍면을 대상으로 친환경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동 공급기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신안=이덕주기자

## 함평군, 동절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안전교육

22일 함평군은 “멧돼지, 고라니와 같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및 인명 피해를 예방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2023년 동절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함평군은 동절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26명을 선발해 지난 21일 함평군 환경보전연합 사무실에서 포획 활동 절차와 활동 시 유의

사항, 총기 안전교육, 안전사고 예방,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 시 유의사항 등 안전교육을 마쳤다.

동절기 피해방지단은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활동할 예정이며 유해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등의 피해를 입은 주민이 군청 환경관리과 및 읍·면사무소에 신고 시 현장에 출동해 야생동물을 포획한다.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야생멧돼지 집중포획 및 폐사체 예찰을 비롯해 밀렵감시, 부상동물 구조 등의 활동도 함께 실시한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동절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을 통해 겨울철 농작물 피해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방지하고 군민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함평=김광춘기자

**아세요?  
한수원이요즘바쁜 이유**

온실가스를 없애고  
미세먼지는 줄이고  
기후변화까지 막는  
지구를 살리는 바른 에너지를  
세계 곳곳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한수원은 지금  
바른 에너지 개발로 열일 중**

**한국수력원자력주**